

<취임사>

‘MBC다움’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결집된 힘



사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인태입니다.

내년이면 사우회는 창립 30년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만큼 키워

오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사우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사우회를 위해 많이 기여하지도 못한 저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봉사하러”는 의미로 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으로 압니다.

부족하지만, MBC를 통해 받은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답하는 뜻에서 힘닿는 데까지 소임을 다하려 합니다.

1961년 창사 이후 MBC는 한결같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발전, 성장해왔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사우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종로구 인사동 15번지, 중구 정동 22번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그리고 마포구 상암로 267번지에 이르기 까지 MBC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는 ‘영원한 MBC맨’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MBC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무척 우울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치열한 플랫폼 경쟁으로 방송의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에 MBC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MBC의 새로운 도약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MBC다움’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결집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MBC에는 좋은 방송을 향한 꿈의 DNA가 있다’고 깨우쳐 주는 선배들의 간곡한 기원과,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고 입술을 깨무는 후배들의 결심이 합치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부심과 일체감과 열정, 그리고 사명감은 MBC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창사 60년을 맞는 우리 MBC의 저력을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우회원 여러분. 주어진 임기 동안 사우회원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는 사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원관리, 동호회 활성화, 재정 건실화 등 어려운 과제들은 선배님들의 중지를 얻어 풀어나갈 것이며, MBC 본사와의 유대관계도 긴밀하게 엮어 가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마음의 고향 MBC’를 되새길 수 있는 사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에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살자’는 이념을 실천하는 MBC사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열려 사우회장에 차인태 회원 선출

금년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7일 오전 11시 종로 ‘파노라마뷰페’에서 열렸다.

총 1,412명의 회원 중 211명이 참석하고 305명이 위임장을 보내오으로써 총회 의결 정족수(1/3이상 참석)를 충족시켰다.



김상옥(ANN)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연현회장의 개회선언과 의안 상정에 이어 신대근 상임부회장의

재무상태(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감사보고에 이어 진행된 임원개선안에서 회원들은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추천한 차인태(ANN)회장을 비롯, 부회장단, 이사진 등을 원안대로 선출했다.

의안 심의가 끝난 뒤 이연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긴축모드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각박한 상황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회원들의 이해와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새 임원진들이 사우회를 더욱 활기차게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인태 신임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한분 한분 뵈니까 너무 반갑다. 과거에 MBC로부터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사우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우회 선배들과 현직 후배들의 합심으로 MBC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차 회장의 소개로 새 임원들이 단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정기총회는 막을 내렸다.

이날 사무처에서는 MBC 다이어리와 회원수첩 그리고 김 세트를 사우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동호회 상반기 행사 일자 확정

낚시대회 4월 19일(금) 등산대회 4월 30일(화)
골프대회 5월 21일(화) 바둑대회 5월 29일(수)

상반기 동호회 행사 일자가 확정됐다. 등산대회 장소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시작하는 북한산 둘레길 코스, 바둑대회는 사우회 사무

실, 골프대회는 춘천 오너스골프장에서 열리며 낚시대회 장소는 대회 시작 1주일 전에 확정, 개별 통고와 동시에 발표한다.

여의도 舊사옥 송신탑 철거 행사 열려



2월 19일 오후 여의도 MBC 舊사옥 해체 현장에서 송신탑을 철거하는 조출한 기념식이 있었다.

이연현 사우회장,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 최승호 사장을 비롯한 MBC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방송사의 상징인 송신

탑을 철거함으로써 여의도 사옥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초현대식 빌딩이 들어서게 됐다.

이연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비록 여의도 사옥은 사라지지만 그 속에 담겼던 모든 추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살아 있을 것”이라고 아쉬운 소감을 술회했다.

사우회 새 임원 명단

감 사: 이상근(기술), 한윤희(관리)
부 회 장: 김상옥(편제, 상임), 양영철(보도), 정연호(ANN), 박종규(기술), 이용구(업무), 신견옥(관리)
이 사: 장덕수, 김승월(편제), 이재은, 차경호(보도), 조일수, 권혁화(ANN), 최 천, 최근진(기술), 한귀현, 신명현(업무), 조승필, 최동윤(관리)
사무처장: 이석일(보도)



이상근



한윤희



김상옥



양영철



정연호



박종규



이용구



신견옥



장덕수



김승월



이재은



차경호



조일수



권혁화



최 천



최근진



한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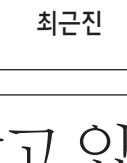
신명현



조승필



최동윤



이석일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유 효 근(관리)

2010년에 시작한 ‘의정부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2013년에 시작한 ‘의정부시 블로그 행복기자단’ 활동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로 뽑혀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올 4월 입대를 앞둔 아들의 권유에 힘입어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활동도 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힘들기는 해도 나름 재미도 쏠쏠합니다.

행복기자단 활동을 할 때는 특히 개인정보나 초상권 보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행사 사진에서는 사전 동의가 없는 사람의 경우 모자이크를 합니다. 기자단 활동은 1년 계약직입니다. 저는 배짱은 있으나

눈치는 없는 편입니다. 해마다 겨울로 접어들 때가 되면 시청 앞 광장에서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하는 김장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참여한 봉사자 단체와 시장님이 기념촬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사진 찍으려는 단체는 많은데 시장님이 옆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모두들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쳤죠. “여기 보세요!!”. 원래도 작은 목소리가 아닌데 좀 크게 질렀더니 옆에 있던 시장님 전담 카메라맨이, “와! 시장님 말씀 끊은 적 없는데.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면서 놀라워했지만 중요한 말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알바인데 뭐 어찌라고’ 하는 당당함이 마음속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꼬우면 찔라!

한 번은 의정부 내 맛집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마다 답글을 달아야 하는 방침에

따라 한참을 고민하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얻어먹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달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데 네 눈엔 뭐가 보이냐?’라고 쓰고 싶었지만, 시 블로그를 싸움판으로 만들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단 답글이었는데 상대방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업포성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그때도 ‘내가 네 말에 쫄 것 같냐. 내가 공무원이야? 알바 그만 두면 돼, 짜샤’ 라고 하고 싶었지만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참았습니다.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자단 활동은 별 일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축제나 행사를 취재할 때는 기자들 간 기사 경쟁도 벌어집니다. 기사 발굴이 어려울 때 저는 ‘MBC뉴스투데이’ 생활정보 코너에서 아이템을 찾아 소개하는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방송기자와



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기사 내용이 맘먹은 대로 써지지 않을 경우엔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도 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방송 뉴스를 만들었던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호·인성 강의를 하는 강사단 교육을 권하는 분도 계셨지만, 학생들 앞에서 40~45분 강의는 무리라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우회원님들은 젊은 시절 방송 일을 하셨으니까 지금도 세상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의 규모는 작지만 저처럼 살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어떨지요?

경·조사

■ 구순 ■

차재영(편제) 04/23

■ 팔순 ■

박생섭(편제) 04/02 정경태(관리) 04/02 이명세(관리) 04/07
유혜자(편제) 04/14 이상욱(보도) 04/26 이중광(관리) 05/18
임정봉(기술) 05/28

■ 고희 ■

권재욱(관리) 04/14 장두호(관리) 04/28 고창근(ANN) 05/07
오학균(기술) 05/25

■ 회갑 ■

홍명표(관리) 04/08 이길범(관리) 04/25 문철호(보도) 04/27
박정인(관리) 05/01 김철영(편제) 05/15

■ 결혼 ■

김종진(편제) 장남 01/26 최병규(편제) 아들 02/16

■ 부음 ■

고대석(보도)장인상 11/03 김용관(편제)장모상 01/21
이문노(보도)상배 01/22 유민환(편제)장모상 01/30
최영호(편제)장모상 02/03 최삼규(편제)장인상 02/09
김지현(업무)장모상 02/22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김태현(편제) 010-0000-5904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남정우(기술) 010-0000-234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박화진(편제) 010-0000-0864 강동구 천호대로
송주한(보도) 010-0000-6081 용산구 이촌로 71길
오정훈(관리) 010-0000-581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정우석(보도) 010-0000-9747 경기 김포시 전원로
지수환(관리) 010-0000-1779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함윤수(편제) 010-0000-543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 연회비 ■

1월: 강효복('19) 권태규('19) 김광안('19) 김상호('19) 김순홍(18~'19)
김윤근('19) 남기두('19) 문성수('19) 박기윤('19) 박수효('15~'18)
서정호('19) 선남준('18~'19) 염기원('19) 염영수('19) 유민환('19)
이기주('18~'19) 이상원('19) 이영호('19) 이원형('18)
이종모('16~'18) 장두형('18~'19) 전형찬('19) 정봉일('19)
조무영('19, 80세 납부 끝)
홍신숙('19) 홍이표('19)

2월: 고창근('19) 권혁화('18) 김삼랑('19) 김선희('19) 김정명('19)
김채영('19) 남궁미('19) 남궁옥인('19) 노영인('19) 노성석('19)
박민정('19) 박승기('21~'23) 박종순('19) 박찬순('19)
박춘수('18~'19, 80세 납부 끝)
박화진('19) 손도정('19) 손동용('16~'18) 송주한('19) 서은선('19)
서상용('19, 80세 납부 끝) 신명현('19)
심상수('18~'21, 80세 납부 끝)
안종순('19) 안주희('19) 오인환('19~'24, 80세 납부 끝)
유무정('17~'19) 윤남현('19) 이명수('19) 이명순('19) 이상림('19)
이영일('19) 이인숙('19) 이하결('19) 인우삼('20, 80세 납부 끝)
전병욱('19) 전정익('19, 80세 납부 끝) 전지웅('19) 정석진('16)
정연호('19) 정영희('19) 차인태('21~'23, 80세 납부 끝)
최운형('19) 최인열('08~'12, 80세 납부 끝)
최화숙('19) 하광언('19) 하영상('19~'20, 80세 납부 끝)
홍윤호('18, 80세 납부 끝) 황경자('19)

■ 평생회비 ■

남정우(기술) 01/21 김태현(편제) 01/22 오정훈(관리) 01/23
지수환(관리) 01/24 정우석(보도) 02/11 함윤수(편제) 02/18

번호 / 주소 변경

편제 : 김경태 동작구 만양로
이은규 송파구 올림픽로

보도 : 이연재 강남구 언주로
한박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ANN : 방남순 서초구 남부순환로315길

기술 : 양승원 동작구 현충로 20길
양홍열 강서구 등촌로 13자길

업무 : 심준보 강동구 명일로

관리 : 김갑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임남규 송파구 송파대로

회비 납부 안내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무규정에는 “연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회비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회비 납부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02-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한식(관리)

1월 29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1969년 7월 총무부에 입사해서 시설 업무에 종사하다 1995년 12월 정년 퇴직했다.



장석호(보도)

1월 29일 항암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66세. 1978년 보도국 CA기자 입사. 도쿄특파원, 영상편집부장을 역임하고, 2007년 퇴임했다.



최인열(기술)

2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1964년 입사, 기술국장을 역임하고, 제작기술국장, 1988년 청주 MBC 상무로 퇴임했다.

회/원/동/정



차인태(ANN, 사우회장)

3월 5일 여의도 소재 '열빈'에서 열린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임됐다. 아나운서클럽은 전,현직 아나운서들의 친목과 사회공헌을 위해 1991년 창립됐다.



전평국(보도)

1월 26일, 전·현직 중견 언론인 모임인 한국언론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 전 회장은 MBC위싱턴 특파원,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명환(편제)

방송 역사 60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수난을 겪은 드라마들의 사연을 모은 'TV드라마 수난사 60년' 『그래도 드라마는 만들어진다』를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출간했다.



마 수난사 60년 『그래도 드라마는 만들어진다』를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출간했다.

조석영(ANN)

1월 17일, 강남구 학동 <남포면옥>에서 열린 MBC OB아나운서 모임에



서 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 새해 첫 모임인 이날 1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상훈(업무)

2월 1일 용인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단호학원'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으로 이

회원은 지난 12년간 단호학원의 이사로 재직해왔다.



박수부(업무)

국제로타리 3650 지구 차기 총재 자격으로 1월10일~20일간 미국 맨체스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국제협의회에서 차기 총재단 연수교육을 마치고 귀국했다.

동/호/회/소/식

인사동클럽(회장 이건설)

라디오PD 모임 인사동클럽은 3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이건설 회장 취임 후 첫 모임을 가졌다. 19명 회원이 참가했으며, 여성 회원 4명(노영인, 박찬순, 유혜자, 최정숙)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성금 105만원을 기탁했다.

장작불에도 감사하며



구영회(보도)

나는, 날마다 지리산 너머로 무심히 해가 솟았다가 저녁에 조용히 서산 너머로 가라앉듯이, 날마다 별일이 없다. 딱히 해야만 할 일도 거의 없는 편이라 대개는 하루가 사브작사브작 무척 담백하게 지나간다. 물론 지리산과 일평생 오래된 인연을 가졌기에 이곳에도 이런저런 지인들은 수두룩하지만, 무척 심심하거나 특별한 볼일이 없는 한 나아서 옆구리 찌르지 않고 주로 나 홀로 나랑 놀며 지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지루함은 느껴지지 않고 뭔가 부스럭거리다 보면 어느덧 석양을 맞이하는 날들이 대부분이다. 초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기 의문이 고개를 치켜들 때도 없진 않았지만, 심각한 내면 충돌 없이 보낸 10년 세월이 스스로 기특하다.

애당초 누가 등 떠밀지 않은 나의 선택이었다. 퇴역 후 주어진 제2의 인생길이자 여생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나만의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삶의 원초적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서 살아가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일찌감치 현역시절부터 내 안에 싹이 터서 점점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2003년 보도국장이 됐던 3월 첫날에 내가 국장실에서 맨 처음으로 한 행동은, 30대 후반부터 주말이면 배낭을 꾸려 먼 길 가리지 않고 기꺼이 찾아갔던 내 인생의 DNA '지리산'의 사진을 붙이는 생뚱맞은 짓거리였다. 내 판에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지리산 속에 혼자 우두커니 머물던 그 '빈 마음'으로 역할을 마치고 싶어서였다. 많은 선배들과 하늘이 도와준 덕분에 나는 그 역할을 큰 그르침 없이 마쳤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꼬집어낸 까닭은 있다. 이 무렵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세상에 내놓은 뿌리와 그 토양이었던 지리산을 향해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다.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 여덟 글자 안에 숨은 나의 인생길이 곧 팔자 아닐까. 팔자는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 하늘의 프로그램이다. 내가 긴 세월 방송 프로그램 틀 속에 움직였듯이 나의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콘티 아래 펼쳐지고 거두어진다는 이치에 정면 반박할 사람 그 누구일까.

아무튼 이러쿵저러쿵 지리산 귀향 10년이 흘렀다. 쉽 없이 흐르고 있다. 내가 예전에 익숙했던 일은 방송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추억 창고에 더미더미 쌓인 옛일일 뿐, 내가 지금 익숙한 것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다.

내가 이제 익숙해진 것은 내세울 것 없이 단출하다. 장작 패서 불피운 부뚜막 아궁이 앞에 하염없이 앉아 있기, 장작 정리하다가 툭하면 정강이 까지기, 손가락 다치기, 길고양이와 산까치 먹이를 마당에 내놓기, 차를 몰고 이리저리 시골길 쏘다니기, 산골 암자에 나처럼 혼자 지내는 스님한테 찾아가기, 모처럼 인근 도회지에 나가 영화를 보거나 책방을 뒤적거리거나 낮선 이방인처럼 길거리를 두리번거리기, 산 위에 올라 저녁 하늘 별 걸게 물들인 석양을 우두커니 바라보기, 맑은 밤하늘에 달과 별 쳐다보기, 눈을 지그시 감고 불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기, 전등불 꺼버린 구들방에 초를 켜놓고 가만히 누워 푹푹거리는 초침 소리에 귀 기울이기, TV 서부영화나 멜로영화 시청하기, 책 읽기, 파도처럼 일어나는 생각들 내려놓기, 콧구멍으로 드나드는 들숨날숨 지켜보기...

제 아무리 새해가 되었더라도 어제의 하늘과 오늘 하늘이 달라진 것 있던가. 즉시현금 갱무시절(即時現今 更無時節). "그대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라는 옛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놓고서 가급적 나의 하루하루를 '완전연소'하려는 다짐 앞에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은 날마다 새삼스럽다.

날마다 처음이고 날마다 마지막이다. 나의 구들방 책상 위 황토벽에 붙여놓은 윤동주의 서시 맨 마

지막에서 둘째 줄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가 내 삶의 방향이다.

그리고 나는 양광모 시인의 촌철 사자후를 아침마다 되새긴다.

살아 있어 좋구나. 오늘도 가슴이 뻐다

가난이야 오랜 벗이요 슬픔이야 한때의 손님이라

푸르른 날은 푸르게 살고 흐린 날은 힘껏 산다』

오늘 나는 지리산 산자락에 놓여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 부뚜막 앞에 고요하게 앉아 있을 뿐이다. '참다운 나'는 명함이 없어도 시종일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깨우쳐 알고 있다.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스치는 바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잊거나 아니면 특별히 기억한다 해도 그 어느 쪽도 나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아침에 뜨는 찬란한 태양은 저녁에 잔잔하게 물드는 석양의 다른 이름이다.

나의 이런 행로를 언제나 따듯한 눈길로 품어주는 아내와 두 딸에게 가슴 속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한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변사람의 배경그림이 되어주는 것이다. 지리산처럼.

여유 있게 사는 법



김용현(미주)

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 못하겠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하며 ‘強對強’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연방 공무원의 봉급은 물론 저소득층 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누가 누구를 닮아 가고 있는가. 정치가 엉망인데 경제도 어둡다. 미국의 성장세가 줄어든 데다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이벤트들이 줄서서 찾아오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 받는 건 한국의 자영업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최저 임금

8,350원, 캘리포니아에서는 25인 이하의 사업장은 11달러, 26명 이상은 12달러로 인상돼 영세업주들의 타격이 심할 것 같아 걱정이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려운 사람도 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새해 들어 교회에는 목사님들의 축복기도가 가득하고 집밖에 나르면 만나는 사람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덕담이 거리에 넘친다. 남에게 덕담을 하다보면 자기 모습도 정갈해진다. 어떻게 하면 행운을 잡고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게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이다.

꿈을 꾸자. 독일의 극작가 ‘F. 실러’는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라고 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요,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꿈꾸는 자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다. 새해 벽두 모두가 꿈을 꾸되 간절한 꿈을 꾸자. 간절한 꿈이 있어야 무엇인가 끌어당

기는 힘을 느낀다. 그러나 세상 일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편할까. 간절히 바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럴 때 낙담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나 분명 다시 찾아 올 거야’ 하면서 유유자적 잠시 여유를 찾을 일이다.

쉬어 가자. 지난 연말 가깝게 지나는 동료 셋이서 소리꾼이 되기로 의기투합했다. 어쭙게 배운 소리는 ‘아마추어 중의 상 아마추어’지만 이 풍진 세상, 할 일은 하면서도 아웅다웅하지 말고 노래하며 기다리며 즐겁게 살기로 했다.

남들이 이름을 “방탄소년단”이라고 붙여주었는데 그도 괜찮은 것 같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홀로 아리랑’의 가사 중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의 구절이 마음에 쏙 든다. 그랬다가 다시 손잡고 가면



‘방탄소년단 공연’

되는 것을.

여유 있게 이 한 해를. 옛날 선비는 ‘나비야 청산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물면 꽃에 들어 쉬어 가자/ 꽃에서 푸대접 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올 한해 한국의 정치나 미국의 정치, 세계의 경제, 한반도의 평화 어느 것 하나 수월해 보이는 게 없다. 잘 풀리나 하다가 또 고비를 만나고, 끝인가 싶다가 다시 또 시작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될 것이다. 일희일비—喜—悲하지 말자. 살다 보면 역사는 평화와 공존과 화해의 큰 강줄기로 흘러가는 것을 안다.

(2019년 1월)

TV드라마 60년 수난사



오명환(편제)

마 수난사는 곧 방송사史며 사회사가 된다. MBC드라마 수난의 몇 가지 사례.

-1982년 이병훈PD는 황석영 원작 <장길산>을 기획했다. 대본(윤대성)도 8회분까지 완결했고, 히로인 묘옥 역에 원미경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무참히 꺾여 버렸다. “방송에 부적절한 소재”...안기부에서 통보한 간단한 이유였다.

-1982년 가을 MBC는 김수현의 <눈물이 보일까봐>를 새 주말극에 배치했다. 소시민들의 따뜻한 정을 그린 내용이다. 사장(이우희)이 느닷없이 제동을 걸었다. ‘눈물’이 문제였다. 눈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새 5공화국의 분위기를 망

칠까봐 미리 걱정한 것이다.

-1989년 <신용비어천가>는 회사의 반대와 소재의 위험성을 무릅쓴 현길언의 소설을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유시민이 각색한 단막극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합성한 ‘이정환 장군’(김무생)이 권력자로 부상하자 언론들이 다투어 ‘조선왕조의 태조’로 찬양하며 영웅을 만든다.

문제는 장군의 계급장이었다. 계급장 구입은 군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모조품 사용은 군법에 걸린다. 김승수PD는 ‘구속을 각오하고’ 계급장을 만들어 썼다. 방송이 나가자 육본에서 두 사람이 찾아왔다.

-1992년 4월 <분노의 왕국>(이관희 연출)에서는 조선조 마지막 왕 순조의 혼외자손이 아키히토 일본 왕의 즉위 행사장에서 저격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 데, 방송 다음 날 한일 양국의 첨예한 외교 마찰로 비화했다.

주한 일본대사는 외무부와 MBC를 방문해 해명을 요구했다. “역사

상 두 번이나 일왕 암살사건이 있었고, 픽션 차원에서 그런 장면 설정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등등”의 MBC의 대응은 먹히지 않았다. 드라마 말미에 ‘실제가 아닌...’을 고지한 사실도 통하지 않았다.

사태는 드라마를 넘어 양국 간에 누적된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1995년 <모래시계>를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화를 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종도를 전라도 출신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드라마가 ‘변’을 당하거나 ‘화’를 자초하여 ‘정’맞고 ‘훈’나고 ‘탈’이 나는 것은 오늘도 예외가 없다. 드라마의 몸체는 매양 현실바탕, 현실반영, 현실소재를 강조하지만 영상화된 현실은 ‘존재의 차원’이 아니라 ‘의미의 차원’으로 탈바꿈한다. 수난의 여부와 강도는 국가와 사회가 전통적으로 갖는 관습적 인식과 가치관에 의한다. 더불어 드라마가 방송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와 해석이 가해진다. 그 해법은 시공간을 초월한 관행의 힘에 의해

수난을 초래하기도 하고, 상대적인 반발에 의해 고난을 자초하기도 한다. 불륜, 폭력, 퇴폐, 선정, 표절, 간접광고, 저작권 침해 등은 전자에 속한다. 후자는 상황논리에 따른 외압적 관여와 특정집단에 의한 악세스(제소, 고발)를 뜻한다. 특정집단은 향후 더욱 예민한 대립각을 세울 태세다.

TV드라마는 당초 생방송으로 시작됐다. 정작 첫 수난은 생방송의 함정이었다. 요즘처럼 ‘사전 촬영 사후 편집’이 아닌, 그냥 한 편의 연극의 생중계였다. 중간에 NG가 나면 첨부부터 다시 시작했다. 긴장과 압박 속에서 완벽한 대사 암기와 동작의 숙지를 전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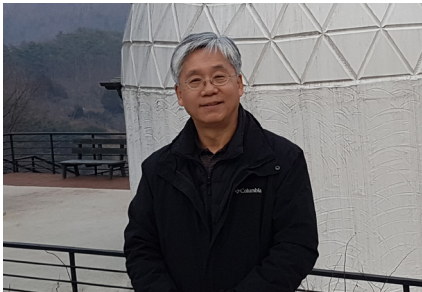
그래서 연기자는 흔들거리는 세트를 교묘히 붙잡고 즉흥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드라마=생방>이라는 DNA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내림의 수난’으로 자리한다.

※ 『TV드라마 수난사 60년. 그래도 드라마는 만들어 진다』에서 발췌한 내용.-편집자

인터뷰

별 보러 오세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순전히 사재를 털어 천문대를 건설한 '별 전문가' 정호준(기술, 해달별천문대 관장) 회원을 찾아 전남 광양군 봉강면 하조마을로 갔다. 산 속에 있는 그의 집에서 一泊하며 그의 안내에 따라 천체망원경을 통해 본 밤 하늘은 환상이었다.



▶개인이 천문대를 세운다는 게 예삿일은 아닌데, 언제부터 별에 관심이 있었나요?

별에 대한 관심이 처음 생긴 것은 중학교 3학년 어느 여름밤인데요, 남쪽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저게 무슨 별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선생님도 모르시더라고요. 혼자 백과사전을 뒤져서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고 '화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공부 잘 하는 애가 "말도 안 돼. 화성이 어떻게 맨눈으로 보이니?"라고 일축해버려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좀 무안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신문에 '화성, 지구에 대 근접'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제가 옳게 본 거죠. 아주 드문 일이 1971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걸 제가 우연히 본 거예요. 그로 인해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별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어요.

▶대학에서도 천체학 전공을 했나요?

아뇨.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좀 부족했어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지만 전공 공부하랴, 나중에는 직장 일하랴 도무지 짊을 낼 수가 없었어요. 퇴직을 몇 년 앞두고서야 겨우 시간이 나서 다시 별 공부를 했습니다.



▶천문대를 세우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쯤인가요?

2002년인가 3년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현찰로 줄 때가 있었죠? 그때 받은 3백만원으로 천체 망원경을 처음 샀어요.

일산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그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찾는데 한 달이 걸렸지만, 그때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었죠. 그게 시작입니다. 2014년에 MBC에서 퇴직하고, 다음 해에 이곳으로 내려와서 천문대를 짓기 시작해서 2016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주문진인데 멀리 전라도까지 와서 천문대를 세운 사연이 있나요?

제 만동서가 여기에 처음 왔는데, 와서 보니 너무 좋은 곳이라서 지금은 네명의 동서가 모두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항암치료를 하던 아내가 요양 차 먼저 내려왔죠. 당시 마을 가까운 산이 매물로 나와서 동서들이 공동 구입을 해서 나눴어요. 저희 몫이 한 2천평 되는데, 처음엔 조그맣게 지어서 혼자 즐기려고 했죠. 근데 아내가 "광양에는 천문대가 없으니 기왕이면 크게 지어서 이곳 아이들에게도 별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해요.

생각해보니 맞아요. 산골마을이라 사람들이 올 일이 없는데 천문대를 세우면 어른들이 가족과 같이 올 수 있잖아요. 나들이도 하고 별도 보고. 그래서 좀 무리해서 제대로 된 천문대를 지었습니다. 제 행동이 기특하다고 생각됐는지 뜻밖에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망원경 6대를 사주셨어요. 고마웠죠.

▶건축하는데 지자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서요.

네, 3억 대출을 받아 지었어요.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운영 일체를 지자체가 관리, 감독합니다. 심지어 출, 퇴근까지도 체크를 해요. 별을 보려면 천상 밤에 일하는데, 별 안보는 낮 시간에 대해서도 관리를 받게 되죠. 아니, 퇴직한 뒤 느긋하게 즐기며 살려고 왔는데 제가 뭇 땀에 그러겠어요? 이것 지어서 수익을 올리자는 것도 아니니까 제 맘대로 자유롭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경비가 꽤 들어 갈텐데 살림은 어떻게 꾸려 가시는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일러 기름, 인터넷 사용료 등이 있지만, 꽤 큰 게 보험료예요. 관람객들이 오니까 그 분들을 위한 상해보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이런 게 다 합치면 년 6백~7백만원쯤 됩니다. 수입은 별 보는 체험료가 현재 1인당 만원이구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숙박료를 따로 받습니다. 제가 출장 강의를 가끔 하는데 그 수입도 운영비로 쓰죠. 3년간 운영해보니 그냥 현상유지 정도예요. 그 정도면 됐죠. 돈 벌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강의는 역시 별 자리에 대한 내용인가요?

별 자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크게 봐서 우주론, 더 크게 보면 인문학 강좌죠.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 교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강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걸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우리에게 맞는 자료를 보완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흥미를 갖도록 재구성했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합니다. 강의 요청한 곳이 어딘가에 따라 그 수준에 맞는 자료를 갖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나요.

천문대에 따른 영상교육관도 있기 때문에 단체로 견학 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인근 지방 뿐 아니라 멀리 부산이나 대전에서도 옵니다. 그중에는 천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 밖에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와요. 이곳에 펜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2~3일씩 묵으면서 관광도 하고 별도 보고 그러죠.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3년동안 천문대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많을텐데요.

많죠, 어려서부터 별을 좋아했지만 직장 때문에 전념을 못했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저런 궁금했던 걸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를 알면 그에 관련된 다른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릅니다. 최근에 경영컨설팅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오신 컨설턴트 말씀이 '개인이 운영하는 천문대라서 자기도 많이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 놀랍다. 이런 경우 대개는 3년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데 3년을 버틴 걸 보니 올해부터는 특별하게 홍보를 안해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천문대 참 지을 때부터 아내가 저의 생각과 취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어지간한 어려움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큼니다. 당초에 진입료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땅 주인께서 저의 취지를 들으시고는 무상으로 땅을 내주셔서 길을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획이라기 보다 꿈이 있는데요. 첫째는, 미세한 진동에도 예민한 망원경이기 때문에 설치대를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하고, 지붕이 자동으로 열리는 'slide roof'를 설치하고 싶어요. 한 5천만원쯤 들 것 같은데...두 번째는, 그동안 칠레, 볼리비아, 호주 등 사막이 있는 나라의 유명한 천문대를 다녀왔지만 아직도 못 본 곳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많은 곳을 두루 가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어린 학생들이 별과 천체를 보면서 큰 꿈과 이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우회원들께서 손주들을 데리고 오신다면 VIP로 모셔서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답: 최 천(기술, 편집위원)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동심童心を 선도先導했던 〈MBC 창작동요제〉

“어린이들의 마음에 꿈과 아름다움을 심어주고 순수하고 참신한 창작 동요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MBC 라디오제작국 주최로 1983년에 시작 해서 2010년에 폐지된 대한민국 최초의 동요제였다.

악보와 테이프로 1, 2차 예심을 치르고, 결선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MBC TV와 라디오(표준FM, FM4U)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했다.(단, 1회, 24회, 25회, 27회는 사전녹화 방송) 초등학교 이하, 순수 동요 작사 작 곡가만 참가할 수 있었다.

제1회 대상곡 '새싹들이다', 2회 '노을', 3회 '즐거운 소풍길', 4회 '종이접 기', 6회 '이슬', 7회 '연날리기', 14회 '네잎 클로버' '아기 다람쥐 토미', 15회 '아빠 힘내세요', 23회 '함께 걸어 좋은 길', 25회 '참 좋은 말' 등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곡이다. 특히 제15회 입선곡 '아빠 힘내세요'는 2012년에 표절 시비 논란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표절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표절 시비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006년에는 금강산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회를 거듭하면서 '특정 인맥이 작용한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중복참가도 많았다. 거기다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이 반 이상 본선에 참여하는 지역편중, 순수 창작 동요제의 취지를 어지럽히는 사건들도 자주 발생하자 2010년 제28회를 마지막으로 폐지했다. 1회부터 28회까지 본선 진출곡 수는 402곡이며 초·중등 교과서에 20여곡이 실려있다. 누가 뭐래도 MBC라디오의 자부심이었던 '〈MBC창작동요제〉', 이제는 재정비해서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



인도를 여행하면서



김승수(편제)

어린 시절, 부모님은 새벽잠에 취한 나를 깨워서 약 2km 쯤 되는 우암산 중턱에 있는 절로 데려갔다. 조롱박에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물로 손을 닦고 들어간 대웅전은 서늘했다. 빼적거리는 마루 바닥에서 보는 탕화는 낮설었고 누런 금칠을 한 찢어진 눈의 비대한 부처상도 무서웠다. 그런가 하면, 당시 우리 동네 골목대장이었던 병원집 아들 창준형네 집 거실 벽에는 수염 난 장발의 아저씨가 양떼들을 몰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린 지옥도도 있었다. 어린 나에게는 그 그림들도 낮설고 무서웠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멀고 알 수 없는 그러나 강력한 우상인 줄만 알았다. 그러다가 1983년 독일에 있을 때 한 신부님을 따라 이태리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예수도 사람이고 참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하는 동정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분보다 약 600년 전, 그 곳의 동북쪽 이웃에서

태어나 그분과 비슷하게,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목표로 80평생을 사신 인간 고타마 부타(Gautam Buddha)를 마음과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 지난 1월 '70살 기념 인도 성지순례'에 나섰다. 십여년 전부터 법륜스님의 인도 성지순례 추천을 하신 어머님께서 90이 넘어서라도 그분의 지각 도반이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다.

1월의 인도는 건기를 맞아 온통 운무와 흙먼지로 뿌옇다. 북쪽 히말라야산맥의 냉기류와 인도양과 벵골만의 난기류가 만난데다, 내가 다닌 바라나시, 보드가야, 라즈기르, 바이살리, 쿠시나가르 등 인도 동북부에서 룸비니가 있는 네팔과 슈라바스티, 상카시아 등 북부지방은 도로 포장도 안 돼 가로수들은 회색으로 덮혀 있었다.

해는 떴지만 필터 낀 노안처럼 답답했고, 도로는 낡은 차들과 심륜차와 자전거에 소와 염소, 개와 돼지들까지 가세, 무척 시끄럽고 위험했다. 버스가 설 때마다 몰려드는 노약자들. 동정심이 일었지만, 절대 주지 말고 사지도 말라는 사전 안내가 있었다. 한번 주면 더 많은 구걸자들이 몰려와 차가 이동할 수 없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인파와 동물과 차 사이를 피해 겨우 도착한 갠지스강 한 쪽에선

시신들을 태우고, 다른 쪽에선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몸을 물에 씻으면 죄가 없어지고 열반에 들 수 있나요?” 한 비구가 고타마 부타에게 물었더니 “그럼 물고기들이 열반에 들어 있겠네”라며 ‘아니라’고 답하곤, ‘탐욕과 화냄과 어리석음이라는 3독을 없애고 다섯 가지 계五戒를 지켜 바르게 살고, 빗물이 바위를 뚫듯 수행정진해야 열반에 든다’고 답하셨다. 현재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일 뿐, 힌두교가 지배 종교다.

고타마 싯달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 고행하던 산이 보드가야에 있는 전前정각산正覺山이라는 석회석 산이다. 그 산 아래엔 시타림屍陀林 즉 ‘시체를 버린 숲’이란 뜻의 야산이 있다. 카스트제도가 있는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란 최하층 계급이 있다. 시체들의 주인공이 바로 그들로서, 늙거나 병들어 노동력이 상실되면 쓸모가 없어져 산 채로 버려진 사람들이 쌓여 산 모양을 이룰 정도란다. 산 채로 시타림에 버려진 몸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겠는가. ‘시달린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도 이번 여행에서 처음 알게 됐다.

고타마 싯달타와 제자들은 왜 밥 그릇 하나와 분소의(糞掃衣, 대변 후 향문을 물로 씻어내고 그 물기를 하체를 닦았던 큰 천으로 닦아냄)

만 걸친 채 중생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 걸식으로 발우공양을 했을까? 혹자는 불자들의 으뜸가치인 ‘남에게 베풀다’는 보시의 공덕을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라고도 하고, 수행정진과 제행무상과 내 것이 없다는 것과 무아無我라는 부타의 기본철학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중생의 고통 중 의식주의 결핍이 가장 큰 고통일진대, 걸식할 시간에 그 넓은 땅에 먹을 것을 심고 가꾸고 동식물들과 공존하며, 최소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자급자족을 위해 노동하면서도 선을 하는 노선勞禪을 하면 안될까? 행선行禪, 주선柱禪, 와선臥禪도 있던데? 라는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

2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인도 거리의 수많은 걸식자들을 보면서 그 곳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게 분노와 원망의 시선을 떨칠 수가 없었다. 불교 국가들이 못 사는 이유가 혹 걸식문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는지. 그래서, 죽은 뒤 극락을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 이 땅에 낙원인 정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법륜 스님과 행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고타마 부타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생로병사가 윤회하는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여러 예시들을 우리에게 남겨 주신 덕분에 70 이후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새길 수 있었다.

동네 이장里長으로 산다는 것



윤재희(관리)

포크레인 한 방에 외장창 부서져 내리는 헌 집의 자재들을 7~8명의 회원들이 죽 늘어서서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자리를 평탄하게 만들어 상·하수도관을 묻고, 기초 바닥 레미콘 칠 준비를 하면 어느새 이마엔 땀방울이 맺히고 내뿜는 입김엔 숨 가쁜 모습이 역력하지만 모두가 웃으며 일하고 있다. 오늘이 동짓날이라고 팔죽을 쑤어온 부녀회장의 따뜻한 접대를 받은 회원들은 일손을 잠시 멈추고 팔죽에 있는 새알 개수를 세며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너스레를 떤다. 이번 사업이 작년에 이어 7호점이니 까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이어지는 우리 옥종면의 '주거 개선사업'이다.

작년 봄, 이장 직을 맡은 후, 눈에 띄게 급한 시안 중 하나가 뒷마을에 사는 고시 낙방생의 집을 수리해 주는 일이었다. 그는 법대를 졸업한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일곱 번 낙방을 한 뒤 거의 삶

을 포기하고 주정뱅이가 된 중년 사내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 주인공마냥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밤낮으로 술에 취한 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보기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동네 청년 몇 사람을 모아 의논을 하니 모두들 첫 마디에 동참해주겠다. 그동안 아무도 나서주는 사람이 없어 차일피일 지내왔지만, 어릴 적부터 형·동생하며 살아온 이웃이라 '이장님이 나서 주신다면' 기꺼이 하겠다. 말 나온 김에 집에 있는 포크레인을 끌고 가서 쓰레기부터 대대적으로 끌어내는 대청소를 시작하자 면사무소 복지담당계장이 쓰레기봉투, 커피, 간식까지 갖다 주면서 "전임 이장 때부터 늘 걱정해 오던 독거노인 주거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며 행정 지원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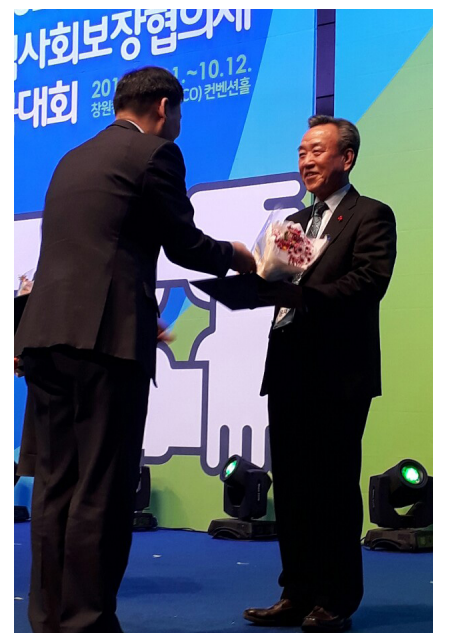
두어 달 동안 동네 청년 4명이 뜯어내고 갈아 넣고, 지붕부터 방바닥까지 깨끗한 양옥으로 리모델링을 끝낸 뒤 동네 사람들과 입주 잔치를 벌였다. 이 자리에 오신 면장님, 직원들과 함께 나눈 덕담들이 군내에서 화제가 되더니, 내친 김에 옥

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일까지 하기로 한 것이 작년 9월 1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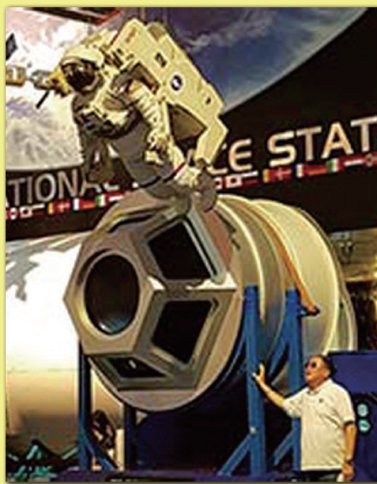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 이웃을 지역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봉사단체다. 우리 옥종면 협의체는 주거 개선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알맞은 재능과 봉사정신을 가진 지역주민 16명을 회원으로 뽑아 첫 회의를 열면서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고, 회비와 기부금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회칙을 만들었다.

사업 초기에는 어수선했지만 2호점부터 손발이 척척 맞더니 3, 4, 5, 6호점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주택수리 전문업체 못지않은 팀워크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구성원들이 토목, 건축, 목수, 설비, 전기, 요양원장, 은퇴공무원, 철물가게 운영자, 부녀회장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삶도 팍팍하지만 생업 중의 하루를 기부하면 누군가의 재래식 화장실이 깨끗하게 개선되고, 무쇠솔이 걸린 부뚜막이 현대식 싱크대로, 비 새

던 지붕이 고쳐지고, 얼룩진 벽이 말끔한 도배로 바뀐다. 자식 복 없음을 한탄하던 노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수혜자가 아닌 협의체 회원들이다. 한 회원은 봉사 끝에 느끼는 뿌듯한 자존감이 너무 좋아 '일당 받고 하는 일이 싫어졌다'는 농담도 한다. 그 뿐인가. 우리 즐겁게 일했을 뿐인데 정부에서는 '모범적인 사업을 펼쳤다'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주겠다니(사진) "이장, 할 맛 납니다."



**중앙엔지니어링은
해외 플랜트에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합니다.**



중 앙 엔 지 니 어 링
JUNG ANG ENGINEERING

HEAD OFFICE : RM#316, 317 Song-Hwa Bldg. 100 Gomisul-Ro, Dongdaemun-Gu, Seoul, S.Korea
T. +82-2-2244-1970 | F. +82-2-2243-3269
Website : www.jungangengineering.com | E-mail : jengineering@hanafos.com